

“ 감사생활이 체질화 되어야 ”

■ 이종윤 원로목사

고난과 역경 속에서 살던 이가 소위 성공한 사례는 이 세상에 많이 있다. 세계 인명록에 기록된 이들의 80%가 면단위 이하에서 즉 농어촌 또는 광산촌 출신이라는 사실은 우리를 놀라게 한다. 시성(詩聖) 바이런은 발 기형을 갖고 산 이다. 로마 황제 줄리어스 시저는 간질병 환자였고 악성(樂聖) 베토벤은 청각장애 환자였고 모차르트는 폐결핵 환자였다. 2차 대전의 영웅 루스벨트는 소아마비로 휠체어를 타고 다녔고 헬렌켈러 여사는 어려서부터 시각장애 청각장애 환자였다.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 바벨론에 끌려간 노예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한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신 총명으로 느브갓네살 왕의 꿈과 벨사살 왕 앞에 나타난 글자를 풀어 당시 바벨론의 셋째 통치자가 된다. 그러나 그를 시기하는 이들로 인해 그는 사자굴에 던짐을 받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생길 것을 알고도 그런 일을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고난의 날에 감사한 다니엘

다니엘은 소원성취를 했기 때문에 감사하는 상대적 감사를 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환난과 고난의 날에 하나님께 감사를 했다. 사람이 항상 감사하기란 쉽지 않지만 마음을 겸손히 먹고 자신의 위치를 낮게 잡으면 감사할 일이 많아질 것이다. 겸손해서 손해 볼 일은 없으니 그 자체로 이미 덕을 보겠으나 겸손함으로 더 감사할 수 있어 금상첨화 격이다. 그리고 감사할 거리를 우리는 항상 찾아야 한다. 우리 주변에는 감사할 거리가 얼마든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몰라서 감사할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돈 버는 방법이나 몸에 좋은 건강식품을 찾는 일에는 혈안이나 그것들보다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하고 건강하게 할 감사거리는 코 앞에 두고도 불평만 벌컥 낸다면 이야말로 어리석은 일이 아니겠는가?

기도하면 감사가 터진다

다니엘은 왕의 조서가 내려진 사실을 알고도 그는 집에 돌아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했다. 위기 앞에서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하므로 감사할 수 있었다. 지금 하나님 앞에 눈을 감고 기도를 해보라. 현재 나의 처지가 얼마나 감사한 자리인지 깨닫게 될 것이다. 감사와 기쁨과 기도는 불가분리의 관계가 있는 것이다. 기도하는 이는 지금의 작은 고통 때문에 이미 받은 은혜를 부정하지 않는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온 노예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한 나라의 총리로 세우셨다. 읊은 모든 것을 빼앗겼으나 과거에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입으로 하나님께 범죄치 않았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 감사

금년에 37년 만에 대풍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이가 내년을 걱정하면 감사가 없어진다. 우리는 미래의 모든 것도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함으로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어야 한다. 다니엘은 의로운 고통을 영광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다. 출세는 못해도 의롭게 살고, 가진 것은 적으나 진실하게 살며, 성결을 장수보다 더 큰 복으로 여기고 부귀영화보다 의로운 고난과 죽음을 더 복된 것으로 여길 때 감사가 온다. 다니엘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감사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은 다니엘은 사자의 입도 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두려움 대신 감사했다. 그는 감사생활이 체질화되어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다.”

-한국장로신문 2013년 12월 7일 발췌-

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씨가 꽤나 쌀쌀해진 11월 첫 주입니다. 11월은 감사의 달이고, 서울교회에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말씀과 기도 가운데 더욱 주님 앞에 나아가는 달입니다. 오늘 11월 첫째 주일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뵙겠습니다.

한편,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는 스테반회의 특별찬양이 있습니다. 모든 스테반회원들께서는 적극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1,2,3부 및 찬양예배 시간에 제공되는 실시간 온라인 영상예배 접속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실시간 영상예배 접속방법은 이전과 같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ziHchZPo8YwmR9UYpoXJrA>

주일예배 순서도 함께 보내드립니다.

* 예배 순서 및 영상예배 지침

http://www.seoulchurch.or.kr/upload/20221106_sermon.jpg

서울교회 당회 드림

| | | |
|------------------------|-------------------------------------------------------------------------------------------------------------------------------------------------|---------------------------------------------------------------------------------------------------|
| 우리의 비전 (vision) |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 서울교회QR코드  |
| | | |

| |
|------------------------------------------------------------------------------------------------------------------------------------------------------------------------------------------------------------------------------------------------------------------------------------------------------------------------------------------------------------------------------------------|
| 부 목사 장석남 조원영 안용근 조동수 김익환 전도사 박미라 준전임전도사 강남희 이대원 교육전도사 허은 정기성 김예지 협동목사 심우진 전재홍 양정호 선교사 전광혜(서아시아), 이은준·강해경, 양재성·이현주(카자흐스탄), 이경엽, 조남혜(방글라데시), 조범연·김희경, 우상식·김정욱(인도), 서광중·이성일(인도네시아), 김용진·황경혜(말리위), 김영호·서향정(러시아), 허창범·현미순(일본), 김낙형·오정녀(케냐), 김종일·백순미(외국인 노동자), 박명성(총회), / 이삭, 비스타파, 사지, 에녹(인도), 스프로토바로이, 필리몬, 프로산도, 수레시, 수바쓰, 알로롱, 비시누보도, 보디소프, 린름, 수란존(방글라데시) / 김태식, 윤왕모, 이금순, 김명일(군선교) |
|------------------------------------------------------------------------------------------------------------------------------------------------------------------------------------------------------------------------------------------------------------------------------------------------------------------------------------------------------------------------------------------|

| | | |
|------------------------------------------------------------------------------------|---------------------------------------------------------------------------------------------------------------------------------------------------------------------------------------------|------------------------------------------------------------------------------------|
|  | 천국시민 양성·만민에게 전도·빈약한 자 구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  |
| | 원로목사 Emeritus Pastor 이 종 윤 Lee Jong-Yun, Ph. D., D.D., D. D. | |
| | 담임목사 Senior Pastor 손 달 익 Rev. Son , Dal-ig 06280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길 7 7, Samseong-ro 51-gil, Gangnam-gu, Seoul Korea Tel.558-1106 / Fax.558-2107 http://seoulchurch.or.kr/ | |

“ 출구가 있습니다 ”

■ 다니엘 2:14-23

이태원 참사로 한 주간 내내 마음이 무겁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슬픔과 고통에 잠긴 분들을 위로하고 지원하는 것에 함께 힘을 모을 때입니다. 다니엘은 유대에서 태어나고 자란 유대 소년이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가 낯설고 생소한 환경에 던져졌습니다. 다양한 민족들과 문화, 많은 종교와 우상 가운데 살면서 자기 미래를 개척해야했고 신앙인으로서 정체성도 지켜야 했습니다. 그렇기에 다니엘서는 신앙적 투쟁역사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왕의 음식을 거절하고 물과 채소만 먹고도 더 건강했던 것은 자기 영혼의 순결을 지키려는 자들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총이었습니다. 영혼의 순결을 지키는 자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1. 이어지는 시련들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바벨론의 무당, 술사,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아 꿈을 해석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지혜자들은 ‘왕께서 꿈의 내용을 알려주시면 해석하겠습니다’고 했지만 왕은 답답해 하면서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왕의 명령이 내리매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이러한 상황에서 다니엘이 선택한 긴급한 대책은 기도였습니다. 그는 자기 지혜나 정치적 권력이나 경험에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자주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자기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습관입니다. 그럴 능력이 있으면 문제가 생기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도무지 길이 없다고 느껴질 때, 출구가 보이지 않을 때 이때가 기도할 때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자아도취적 주문을 외울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능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도우십시오. 우리에게는 길도 방법도 없으니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소서.’ 라고 절박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드러납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며...’ 기도하면 길이 보이고 출구가 나타나게 됩니다.

2. 담대한 용기

위기를 극복하는 것에는 기도와 함께 신앙인의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왕의 꿈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고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은 ‘느부갓네살의 나라가 망한다는 사실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때 다니엘이 보인 담대한 용기를 3가지로 봅니다. 첫째는 동료들의 생명을 구하려는 용기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는 용기입니다. 셋째는 진리를 전하는 담대한 용기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기 미래의 안전을 위해서나 자기 신념의 성취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담대할 뿐입니다. 신앙이란 내 신념대로 될 것임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자기를 생각하면 비굴해 질 수 있지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담대했습니다. 이 믿음의 담대함으로 불의한 세상에 맞서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 문화에 도전해야 합니다. 오늘의 젊은이들이 사는 세상은 바벨론처럼 힘들고 어려운 세상입니다. 출구가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이나 위기와 마주치게 될 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담대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거룩한 용기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출구가 있습니다.

이번 주 손달익 목사 설교 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일예배

| 시 간 | 인 도 | 기도 |
|-----------|---------|--------|
| Time | Prsider | Prayer |
| I 오전 9시 | 조동수 목사 | 유충기 장로 |
| II 오전 11시 | 장석남 목사 | 서은석 장로 |
| III 오후 2시 | 김익환 목사 | 김익환 목사 |

입례송 Prelude 오르가니스트
 예배로 부름 Call to Worship시 115:11... 인 도 자
 기 원 Invocation 인 도 자
 * 찬 송 Hymn9(1절)... 다 합 께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다 합 께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29(시 65)... 다 합 께
 * 송 영 Doxology 1 다 합 께
 기 도 Prayer 말 은 이
 찬 송 Hymn341(367)... 다 합 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단 2:14-23... 인 도 자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다 합 께
 봉헌 Offering 다 합 께
 * 봉헌송 Offering Hymn634... 다 합 께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인 도 자
 찬 양 Anthem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다 합 께
 설 교 Sermon“출구가 있습니다”... 손달익 목사
 * 찬 송 Hymn459(514)... 다 합 께
 * 축 도 Benediction 설 교 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다 합 께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찬양예배

오후 4시 30분 · 인도 조동수 목사, 설교 양정호 목사

목 도 다 합 께
 성 시 시 13:5-6 인 도 자
 찬 송 384(434) 다 합 께
 기 도 이병천 집사
 찬 송 212(347) 다 합 께
 성 경 ... 출 4:1-5, 막 11:12-25 ...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시간” ... 설 교 자
 스테반회 특송 말 은 이
 * 찬 송 312(341) 다 합 께
 * 축 도 설 교 자
 * 주기도송 다 합 께

수요일예배

I부 오전 11시 · 인도: 조원영 목사
 II부 오후 7시 · 설교: 손달익 목사

기 도 ... I부: 이영자1 권사 II부: 전성희 권사
 성 경 왕상 10:1-13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 “소문이 사실이다” ... 설 교 자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피아니스트: 홍혜란·박수강·김복희2·이경희3
 설 교 손달익, 전재홍 목사

금요일기도회

오후 8시 웨스트민스터홀
 설 교 조동수 목사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 구 분 | 시 간 | 장 소 |
|--------|----------|-----------|
| 주일예배 | I 부 예배 | 오전 9시 |
| | II 부 예배 | 오전 11시 |
| | III 부 예배 | 오후 2시 |
| | 찬 양 예배 | 오후 4시 30분 |
| 수요일예배 | I 부 예배 | 오전 11시 |
| | II 부 예배 | 오후 7시 |
| 새벽기도회 | | 오전 5시 30분 |
| 금요일기도회 | | 오후 8시 |

교회소식

모임

1. 모세선교회 총회 / 6일(주) 오후 12시 30분 802호
2. 정기당회 / 9일(수) 수요일 2부 예배 후 402호

알림

1. 101호
고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청년부 예배 : 오후 2시
2. 102호
소망부 예배 : 주일 오전 10시 10분-11시
3. 403호
영아부 : 주일 오전 9시-오후 6시
4. 501호
중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5. 601호
초등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 10분 / 청년2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 30분-5시
6. 602호
새가족부 : 주일 오전 10시 10분 · 오후 12시 10분
7. 603호
사랑부 : 주일 오전 10시 30분-11시 30분 / 청년1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 30분-5시
8. 609호
세례교육부 : 주일 오후 12시 10분 / 청년2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 30분-5시
9. 701호
유년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 10분
10. 702호
유치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 10분
11. 706호
유아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 10분

결혼

1. 진호양 군(진현기 장로의 장남)과 주서희 양(6교구 주영도 집사, 오가연 권사의 장녀) / 11월12일(토) 오후 6시30분 로프트가든344 10층 메인홀(02-2644-7823) / 5호선 오목교역 7번 출구

새가족소개

| 성 명 | 다락방 | 소속부서 | 인도자 | 성 명 | 다락방 | 소속부서 | 인도자 |
|-----------------------|-----|------|-----|-----|-----|------|-----|
|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 | | | | | | |

| |
|--------------------------------------------------------------------------------------------------------------------------------------------------------------------------------------------------------------------------------------------------------------------------------------------------------------------------------------------------------------------------------------------------------------------------------------------------------|
| <p>12. 세례식 신청 - 금년도 네번째 세례식인 12월 세례(세례, 입교, 개종, 유아세례)식이 12월 11일(주일) 찬양예배 시 있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례 청원서 작성 및 신청 마감: 11월 12일(토) - 세례교육: 4주 교육(11/13, 11/20, 11/27, 12/4일) 낮 12시 20분 609호 - 세례문답: 12월 4일(주일) 오후 1시 30분 609호 *입교와 유아세례 신청: 11월 27일(주일) *입교와 유아세례 교육: 12월 4(주일) 낮 12시 20분 602호 *신청접수처 : 교육부서 및 교회 사무국 *기타 궁금한 사항은(세례교육부 010-7743-3223)로 문의바람 |
|--------------------------------------------------------------------------------------------------------------------------------------------------------------------------------------------------------------------------------------------------------------------------------------------------------------------------------------------------------------------------------------------------------------------------------------------------------|

지난주 출석현황(인터넷 영상예배 포함)

| 주일1,2,3부 | 찬양예배 | 주일예배 합계 | 수요일예배 | 새벽기도 |
|----------|------|---------|-------|--------|
| 1,500명 | 369명 | 1,869명 | 457명 | 1,677명 |

나의 눈물병

환자에게엔 약병, 주정뱅이에게엔 술병이 있듯이 천국시민에게엔 눈물병이 있다. 하늘나라에 서는 그 병에 담겨진 눈물의 질과 양에 따라 하나님께서 내가 지상에서 어떻게 살다 왔는지를 판단하실 것이다. 마른 눈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스펀전 목사의 명언도 있지만 눈물이 없는 현대인의 삶은 허망해 보이기만 한다.

지난날을 후회하며 흘리는 눈물이나 감상에 젖은 눈물보다는 자기 죄를 통회하거나 남의 허물까지 자신의 죄처럼 자복하며 흘린 눈물이 훨씬 향기롭다. 그리고 범사에 뜨겁게 감사하거나 기도할 때 떨어뜨린 눈물이 값진 것이다. 한 생명의 구원을 위해 흘린 구령(救靈)의 눈물과 주님 위해 흘린 충성의 눈물은 순교자의 피와 동일한 가치가 있다.

나의 눈물병에 눈물이 한 방울씩 더할수록 하늘나라에서 받을 기쁨이 커지리라.

-이중윤 원로목사 신앙칼럼 '순례자'에서-

| | |
|---------|----------------------------------------------------------------------------------|
| 청 결 유 지 |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 힘씁시다. |
| 에너지 절 약 | 불필요하게 전기를 켜놓은 복도와 화장실 전등을 끄시다. 방을 사용한 후 나올 때 반드시 전기(전등, 플러그, 마이크 등)를 끄고 나옵시다. |
| 주 일 성 수 | 주일은 예배와 전도하는 날입니다. 가급적 회의를 줄이시고 예배와 전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 IN CORDIBUS VESTRIS DOMINO

| 찬 양 대 | | | | | | 봉 헌 송 | | |
|-------|------|-----|--------|-------|-------|-----------------------------------------------------------------------------------------------------------------------|-----|-------|
| 예 배 | 찬양대 | 지휘자 | 오르가니스트 | 피아니스트 | 팀파니스트 | 찬양대 | 지휘자 | 피아니스트 |
| I 부 | 가브리엘 | 백경화 | 전지희 | 장희원 | 윤주일 | 가브리엘 | | |
| II부 | 할렐루야 | 최유현 | 차주연 | 김양언 | 윤주일 | 그레이스앤드벨 | 송재월 | |
| III부 | 임마누엘 | 유태왕 | 전지희 | 이주희 | 윤주일 | 아멘관현악단 | 임범창 | |
| 찬양예배 | 베들레헴 | 박래경 | 안효주 | 박수강 | 윤주일 |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단 2:23) | | |
| 수요일부 | 호산나 | 구민영 | 김윤지 | 홍혜란 | 금주의 | | | |
| 수요일부 | 시 온 | 최유현 | 김예지 | 조현정 | 성구 | | | |